

영암군, 친환경 공동방제 관계자 교육 실시



영암군은 지난 15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단지 대표, 방제업체 등이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친환경 공동방제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전신고제 운영배경·운영지침·관계자별 역할 등 교육 올해부터 잔류 농약 검사성분 확대 등 안전성 관리 강화

이 날 군은 공동방제 사전신고제 운영배경, 운영지침, 관계자별 역할에 대해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공동방제 사전신고제란 방제업체가 공동방제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거쳐 군에 사용 예정인 방제약품, 사용량 등을 기재한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신고한 내용대로 방제업체는 공동방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친환경단지 대표는 현장에서 사전 계획대로 방제약품을 사용하는지, 허용물질 외 약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공동방제 사전신고제는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농가 및 방제업체를 대상

으로 한 교육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군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올해부터 잔류 농약 검사성분 확대(320종→463종) 등 안전성 관리 강화 등 개정된 내용을 담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라는 어려운 길을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걸어온 농가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군도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현장에 있는 농가들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함평군 백련마을 주민들 마을 전통 살리기 '총력'

함평군 대동면 백련마을 주민들이 마을 전통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함평군은 18일 "백련마을 주민들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마을 입구 보호수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으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 시책사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주민 주도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마을은 3년간 총 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백련마을은 매년 정월 대보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선독거리 제사를 하는 전통이 남아있으며, '백련(白蓮)'이라는 이름처럼 마을에 작은 우물을 조성해 하얀 연꽃을 띄우는 등 마을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 주민들은 으뜸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함께 모여 잡목으로 우거진 보호수 주변을 깨끗이 정비했다. 함평=김광훈기자

목포자연사박물관, 토요자연사교실 운영

7월 23일~8월 13일 매주 토요일 운영...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목포자연사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실험 중심의 '토요자연사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며 3개 과정(1~2, 3~4, 5~6학년)이 총 4차시 강좌로 진행된다. 강좌는 '손가락 화석 만들기', '떡이피라미드 만들기' 등 학년별 눈높이를 맞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목포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교육신청 코너에서 하면 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학교 밖 체험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박물관 전시품과 연계된 과학에 흥미를 갖고, 박물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신안군장학재단, 296명에 상반기 장학금 3억8천7백만원 지급 완료

신안군장학재단은 6월 2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확정하고 신안군 초·중·고·대학생 등 296명 (우수대학생 118명, 내고장진학 29명, 저소득 대학생 83명, 다문화가정 24명, 만학도 21명, 어가 및 저소득 자녀 21명)에게 장학금 3억8천7백만원을 15일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재단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장학생을 선발·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는 지난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2주간 읍·면사무소 및 군 소재 학교에서 장학금 지원 신청을 받아 6월 27일 이사회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특히,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학생 및 만학도 장학생을 전원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박우량 이사장은 "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안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장학증서 수여식은 생략하고 초·중·고등 학생은 해당 학교로 대학생 장학증서는 주소지로 전달할 계획이다.

신안=이택주기자

영광군, 여름철 농기계 보관·관리에 집중 여름철 장마·폭염·태풍 대비로는 사전준비가 최선

영광군은 여름철 발생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농작물 관리뿐만 아니라 농기계 분야에서도 집중 관리와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여름철 장마 및 폭우 시 갑자기 불어오는 물수위로 농기계 침수되어 큰 고장이 날 수 있으며, 폭염 시에는 더위와 땀벌에 노출된 농기계는 빠르게 변색되고, 강도가 약화되어 농기계 수명이 짧아진다. 또한, 태풍이 불 때면 강한 강풍에 의해 날아다니는 파편에 부딪히거나 담벼락이 넘어져 농기계를 덮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 준비로는 ▲장마철, 침수를 대비해 농기계를 지대가 높은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부식을 막기 위해 오일이

나 구리스 발라두기, ▲폭염 시, 땀벌을 피해 농기계보관창고 또는 그늘진 곳이나 마땅한 장소가 없을 시에는 그늘차단막·덮개로 덮어두기, ▲태풍 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정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등 사전관리와 준비를 하여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고윤자 소장은 "여름철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장마로 인한 풍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므로, 농기계 폭염 노출이나 장마 침수 시 사후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클 수 있음을 인지하여 계절별 농기계 관리요령을 지켜주기를 재차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무안군, 군민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총 210명

무안군은 2022년 군민 정보화교육 과정을 확정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보화교육은 ▲3D프린팅 기초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 등 3개 과정으로 나눠 실시되며, 수강생은 수업별 30명씩 총 21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7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무안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교육비는 무료이다. 교육은 8월~11월 중 무안군청 전산교육장에서 평일 오전 10시~12시 또는 오후 2시~4시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을 원하는 군민은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 또는 무안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061-450-5322)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3D프린팅 과정을 개설했으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성기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